

# “자연장 장묘문화 포교 기회로”

## 조계종 ‘장사법 개정’에 따른 불교계 정책수립’ 포럼 개최

“자연장 이용한 장례문화 선도는 포교기반을 다지는 길이다.”

5월 26일 시행된 ‘장사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장사법) 개정안 시행에 맞춰 조계종은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6월 27일 조계종 중앙신도회 불교인재개발원(이사장 허경만)이 정책포럼을 열고 중지를 모았다. 한국 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장사법 개정’에 따른 불교계 정책수립을 위한 포럼’을 주제로 열린 포럼에는 정범 스님(조계종 중앙종회 포교분과 간사, 이상인 과장(보건복지가족부 노인복지과), 박준배 과장(경기도청 노인복지과), 박석암 기획팀장(강화 전등사), 이덕진 교수(장원전문대가 참여했다.

정범 스님은 ‘불교계의 사업방안 제안 및 검토’를 통해 “자연장 중심의 화장(火葬) 문화로의 전환은 불교계에 더없는 기회로 적극적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스님은 “현재 각 지자체마다 화장시설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금이 불교계가 나서 적기라며, “기존 사찰 대비 시설을 보완·정비해 활용하자”고 역설했다. 현재 조계종 전통 대비장은 해인사·범어사·백양사 등 교구본사에 갖춰진 상설 대비시설과 여



6월 27일 열린 장사법 개정관련 정책 포럼에서 발표하는 정범 스님.

건이 허용되는 사찰에 마련된 임시 대비시설로 나뉜다.

정범 스님은 사찰 대비시설 활용 방안으로 인구밀집도가 높은 수도권 지역 사찰에서 사찰대비시설을 시범 운영할 것을 제안했다. 스님은 “사찰은 토지를 제공하고, 정부와 지자체는 시설비를 부담해 시설 비용을 분담하자”며, “사찰 대비시설과 수목장립을 연계한다면 국민 편의의 윈스톱 장사시스템을 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잘못됐던 납골문화를 예로 들어 불교계 위상을 추락시켜서는 안된다는 당부도 있었다.

정범 스님은 이를 위해 ▲종법 상

수목장 관리체계 성문화 ▲종단 내 수목장 총괄관리기구 신설 ▲수목장 운영 사찰에 책임분담금 납부의 무화 ▲개별사찰 민원발생시 종단 차원 해결 등 선결과제를 제시했다. 이어 이상인 과장은 ‘장사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자연장 제도 안내’에서 ▲환경·주민 친화적 ▲경제성, 지속가능성 ▲세대간 연대성 등 자연장 도입 취지와 장점을 설명했다. 이 과장은 “자연장 정책 방향은 궁극적으로 화장시설, 자연장지, 방안시설 등을 갖춘 종합추모시설이다. 사찰이 자연장 환경에 적합하다”고 말했다.

박준배 과장은 ‘경기도 장사시

설 현황과 정책방향’을 통해 화장장 1곳, 공설묘지 4곳, 납골당 6곳으로 경기도내 수도권 장사시설 현황을 설명했다. 박 과장은 “화장시설이 현오시설로 인식돼 선박 등 이동식 화장시설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지만 정부차원 대책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석암 전등사 기획팀장은 ‘수목장 운영사례’에서 “강화 전등사에서 수목장 운영 결과 불자들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었다”면서, “올바른 방향제시를 위해 테스크포스(Task Force)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한편 이번 정책포럼을 지켜본 한 장례문화 전문가는 “수년간 수차례 같은 내용이 반복되고 있다. 이는 종단 의견수렴 기능에 문제가 있거나, 연구자 도덕성이 결여된 것”이라 지적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교구본사별 장의전문 도량을 지정해 지역별 거점을 마련한다면 종단의 장례문화 선도가 가능할 것이다. 기존 사찰을 이용할 경우 수행 환경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 대비시설은 상설이 아닌 차량 등에 탑재한 이동식으로 꾸며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도 피력했다.

조동섭 기자 cetana@buddhapia.com

# 경기여고 불교문화재 훼손 물의

## 교내 석탑·석등 등 임의로 해체...문화재청, 보존방안 마련키로

서울 개포동 경기여고(교장 주영기)에서 불교문화재 3점이 훼손돼 물의를 빚고 있다.

지난 5월 말, 학교 공원화 사업 중 주 교장이 지시해 교내 중앙정원 등에 위치했던 5층 석탑과 석등, 교계 첫 의료병원인 ‘불교제중원(佛敎濟衆院)’ 표지석을 땅에 묻은 것.

전문가의 문화재 검증도 없이 매장된 사실에 교사들이 반발하면서 6월 4일, 석탑 등은 다시 꺼내졌지만 석탑과 석등은 해체된 채 학교 방송실 창고로, ‘불교제중원(佛敎濟衆院)’ 표지석은 화단에 방치됐다. 이 과정에서 석등 다리 하나는 부러져 훼손되기까지 했다.

문화재청(청장 이근무)은 6월 26일 관계전문가 실태조사에서 경기여고 불교문화재가 1920년대 조성된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6월 27일 현재 문화재청은 경기



경기여고 화단에 방치된 ‘불교제중원’ 표지석.

여고로부터 이관 받아 국가기관에서 관리하거나, 경기여고 내 별도 공간에 마련하는 방법 등을 강구 중인 문화재청에 의해 ‘불교제중원’ 표지석만 오고 기단석은 정

동에 남아있는 등 학교 의지와는 관계없이 교정에 있던 물건들이었다’는 경기여고 관계자의 말은 근대 불교문화재 관리대책이 시급함을 일깨운다.

조동섭 기자

## 동국대 일산불교병원 최우수 의료기관 선정

동국대 일산불교병원(원장 이진호)이 보건복지가족부가 실시한 2007년 의료기관평가에서 전체 15개 부문 ‘A등급’을 받아 최우수 의료기관에 선정됐다.

500명 이상 종합병원 중 희망기관을 대상으로한 평가는 ▲진료부 운영체계 ▲부문별 업무성과 ▲입상질지표 ▲환자만족도 등 4개 영역으로 나뉘어 실시됐다.

동국대가 A등급을 받은 15개 부문은 환자 관리와 편익, 인력관리, 진료체계 등 진료 및 운영체계 6개 부문과 환자진료, 의료정보·의무기록 등 부문별 업무성과 9개 부문이다. 또한 환자만족도부문에서는 외래 ‘A등급’, 입원 ‘B등급’을 받았다.

조동섭 기자

## “강의석씨 재판 학내 종교편향 현실”

### 종자연·참여연대, 초심·고등재판 분석 긴급토론회

종교편향 문제로 학교법인 대광과 법적 대치중인 강의석씨 문제를 다룬 긴급토론회 ‘강의석씨 1심, 2심판결 비교 및 학교현장에 미칠 영향 토론’이 6월 24일 열렸다.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이하 종자연)과 참여연대공공법센터의 공동 주최로 서울 인권실천시민연대 교육장에서 열린 이날 토론회는 강의석씨 문제를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반의 문제로 봐야 한다는 시각으로 강의석씨와 학교법인 대광 간의 초심, 고등재판을 분석했다.

종자연은 “4월 15일 있었던 ‘학교자율화’ 조치에 따라 종교사학이 학생들에게 종교수업을

강요할 수 있게 되어가는 현 상황에서 강의석씨 문제는 중요한 사회적 의미를 가진다”고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종교 사립학교의 현황과 운영개선 방안’(김행수 전교조 사립위원회 사무국장), ‘종교사학에 빼앗긴 학생의 존엄과 자유’(배경내 인권교육센터 들 교사), ‘강의석씨 판결에 나타난 종교의 자유에 관한 헌법적 고찰’(조재현 성균관대 비교법연구소 연구원)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한편 종자연은 강우석씨의 대법원 재판비용 모금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02)2278-1141

김강진 기자

## 팔공산 갯바위 케이블카 추진

### 사찰·환경단체 “문화재 훼손·생태계 파괴” 반발

설악산에서부터 한라산까지, 케이블카 설치가 논의되고 있는 산은 전국 10여 곳. 전국의 명산들이 케이블카 설치 문제를 둘러싼 공방에 휩싸인 가운데, 대구시가 연간 1천만명이 넘게 찾는 팔공산 갯바위에 케이블카 설치를 추진하고 나서 환경단체와 인근 사찰 등의 반발이 예상된다.

대구시는 6월 23일 대구시 동구진인동 식당가에서 팔공산 갯바위까지 1269m에 걸쳐 케이블카를 설

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여기에 필요한 사업비 124억원은 갯바위 부근 주민 150여명으로 구성된 ‘갯바위 케이블카 유치 추진위원회’(위원장 이용재)가 부담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시는 경북 경산시와 경북도, 경북도 문화재심의위원회, 문화재청 심의를 거쳐 이르면 내년 초 공사를 시작해 2010년쯤 완공한다는 계획이다. 2011년 세계유산선승대회를 겨냥한 이 계획에는 동화사 경

내 통일대불 지하공간(2000m)에 ‘선승련일’을 조성한다는 계획도 포함돼 있다. 하지만 갯바위의 정식 명칭인 석조여래좌상이 보물 431호로 지정돼 있어 문화재 보호구역 및 그 외곽 500m 지역에는 케이블카를 놓지 못하도록 돼 있는 법률에 따라 현재 상

태로는 이곳에 케이블카를 설치할 수 없다. 또 갯바위 인근 사찰 선본사와 케이블카 지나가는 땅의 소유자인 관암사, 그리고 지역 환경단체들은 “케이블카가 팔공산 자연생태계를 파괴할 수 있다”며 공사를 막겠다는 뜻을 비쳐 충돌이 예상된다.

김성우 기자

진공청소·물걸레청소·구석청소 **마미로봇이 한방에 다 한다**

힘 들이지 않고 청소하는 물걸레 로봇청소기 **마미로봇**

대리점 문의 / 제품 구입 1588-7402

가격 : ₩ 275,000

www.mamirobot.co.kr

Mamirobot (주)경인메카트로닉스 NAVER 7299년 마미로봇

## 직장직능 연합신행단체

### 직지사서 임원수련대회

조계종 포교원(원장 혜총)은 7월 5-6일 김천 직지사 만덕전에서 ‘직장직능 연합신행단체 임원수련대회’

를 개최한다. 이번 수련대회는 수련 프로그램과 특강, 화합의 장 등을 통해 신심증장과 더불어 침체된 직장직능불교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지난 2001년 이후 7년만에 열린 직장직능 연합신행단체 수련대회는 임제식을 시작으로 종교환경변화에

다른 신행단체 임원들의 역할과 사상에 맞는 조직 활성화 방안 모색 등을 주제로 한 2차례의 특강, 1080여 참가자, 화합의 장, 조계종 포교원장 혜총님의 법문, 견기명상, 참선 등으로 진행된다. (02)2011-1891 노덕현 기자



# (사)대한불교대승종 제10대. 제11대 총무원장 이·취임 대법회



귀의삼보하옵니다.

불타의 자비광명이 법계에 두루 하시기를 삼보전에 기원드립니다.

금번 대한불교대승종 제11대 총무원장으로 추대받은 법진 도일 큰스님과 아울러 제10대 총무원장 법천 청화 큰스님의 이·취임을 봉행코저 하오니 제반불사에 공사다망 하시더라도 꼭 왕립하시어 뜻 깊은 법석의 자리가 되도록 빛내주시길 앙망합니다.

- ◆일 시: 불기 2552년(2008) 7월 15일 (화요일) 오후 5시
- ◆장 소: 서울 중구 장충동 소피텔엠베서더 호텔 2층 대연회장 / (02)2275-1101
- ◆연락처: (02)951-1074 / 010-9903-1257

사단법인 대한불교대승종 총무원장 이·취임 법회

봉행위원장 법암 혜심  
집행위원장 법장 원해  
합장